

근대 척독집 성행의 문화적 의미와 근대 한문학사적 위상*

- 근대 척독의 이중적 효용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홍인숙**

<차례>

1. 서론
2. 근대 척독집의 장르적 본질, '舊/時'의 긴장과 공존
3. 근대 척독집의 '옛 전통(舊)' 지속의 차원
 - (1) 유교적 위계질서와 예(禮)의 반영
 - (2) 구학문 옹호론의 매개체
4. 근대 척독집의 '시대성(時)' 반영의 차원
 - (1)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문체 의식
 - (2) 신문물의 소개 및 문화적 학습서
5. 결론- '舊/時', 근대 척독의 이중적 효용과 그 근대 한문학사적 의미

<국문초록>

본고는 1900~1950년대까지 이어진 근대 척독집의 성행이라는 문화적 현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한문학사적 위상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근대 척독집 13종을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나타난 '옛 전통(舊)'과 '시대성(時)'의 양상을 각각 살펴보고, '舊(권위)'과 '時(실용)'의 동시 획득이라는 이중 효용이 근대 척독집 성행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즉 근대 척독집의 장르적 본질은 '구(舊)'와 '시(時)'라는 상반된 경향성이 긴장하며 공존하는 것에 있었으며, 이것이 근대 대중들로 하여금 척독집을 계속적으로 소비하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근대 척독집의 '옛 전통(舊)' 지속의 차원에서는 첫째, 척독집 내부의 체계와 예문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유교적 질서를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친친(親親)의 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2-2011-0786-1-2)

** 선문대 교양학부 조교수

리에 입각해 설정된 목차와 편성, 순한문체 상제례·혼례 서식의 의미, 척독집 자체 예문을 통해 설파되고 있는 존비법의 강조 등의 측면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옛 전통 지식의 차원에서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근대 척독집 그 자체의 '구학문 옹호 매체'로서의 기능이다. 구학문 옹호론의 주요 내용은 한문이라는 문자의 권위를 옹호하고 유교 경전의 근본적 가치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근대 척독집의 '시대성(時)' 반영의 차원에서는 첫째, 이 장르가 국한문 문체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시대적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김우균, 이종국 등 주요 척독집 저자들의 국한문 혼용 및 언문불일치에 대한 문체 의식을 주목하였다. 둘째, 근대 척독집이 신문물의 소개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었다는 점과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적 학습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근대 한문학사의 차원에서 근대 척독집은 쇠퇴의 징후를 확인하게 해주는 텍스트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대중의 욕구에 재빠르게 대응'한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투식구와 통속화로 점철된 자료군이지만 그 속에 다양한 척독집 작가들의 고민과 모색이 녹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 척독집을 통해 '한문'이라고 하는 문의 체계가 대중화되고 지속된 점은 충분한 평가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근대 척독집의 소비라는 현상을 통해 대중들이 표현한 '한문에 대한 욕망' 또한 더 적극적으로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근대 척독, 전통과 시대성의 공존, 이종 효용, 조선후기 간찰교본, 조선후기 척독집, 김우균, 현채, 지송옥, 이종국, 국한문 문체

1. 서론

本尺牘은 已爲刊行于世호야 江湖의 好評을 博得호은 바 今에 國漢文으로 新編增補호야 新舊尺牘에 牛耳가 되며 且近日 新法令의 緊要호는 者를 類聚附輯호야스오니 一般人士는 案頭에 必備호는 好書이읍¹⁾

‘강호의 호평’을 이미 널리 받고 있는 ‘호서(好書)’이니 독자들에게 ‘안두(案頭)에 필비(必備)’해야 한다고 1908년 신문광고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위 책은 근대 척독집의 효시로 알려진 김우균의 『척독완편』이다. 이 책은 1898년 처음 책이 완성되었을 때부터 각지의 서당에서 ‘금과옥조로 받들며 베껴가는 자가 무리를 이뤄 낙양의 지가를 올렸’고, ‘당시 젊은이들이 그 규식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은 책이었다.²⁾ 이 책은 1905년 근대적인 인쇄 출판 과정을 거쳐 동문서림에서 발간되었는데 인쇄된 책 역시 이후 12년간 7판의 재인쇄와 3만 질의 판매고를 기록했다.³⁾ 위 광고문에서 ‘신구척독의 牛耳’가 되었다는 표현대로 이후 근대 척독집의 대대적인 출판 유행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된 책인 셈이다.

근대 척독집은 한문편지 쓰는 법을 용어와 예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실용 학습서로, 『척독완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근대의 독자들이 가장 많이 소비한 출판물이었다.⁴⁾ 근대의 주요 출판물이었지만 유통과 소비의

1) 『대한매일신보』, 1908. 12.1

2) ‘命寅諸家塾，於是焉片言隻字，奉如拱璧，索抄者衆，殆紙貴洛陽.’，김우균, 『緒言』, 『(新撰)尺牘完編』, 1908.; ‘年少者無不欲學其規式，爭相抄寫，以備時行之要，常患其誤落相沿.’，고응원, 『跋』, 『尺牘完編』, 1905.

3) ‘幾年의 間에 翻印이 凡六度오 三萬有餘帙에 達하야 居然이 域內에 衣被하리라 …… 坊友가 完編의 第七度印布함을 苦請하노故로 ……’, 金雨均, 『文明尺牘叙言』, 『文明尺牘』, 1917.

4) 민간에서 일제 시기 발행된 출판물 중 근대 척독집은 그 종류만 160여 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 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2000. 64쪽. 현재 한국역사정보시스템과 각 대학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대 척독의 목록은 70여 종이나,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이 목록은 계속 갱신되고 있는 중이다. 홍인숙, 『근대 척독집 간행 현황과 시대별 변화 양상-1900~1950년대 간행된 척독집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12.; 박해남, 『척독 교본을 통해 본 근대적 글쓰기의 성격 재고』, 『반교어문연구』36, 반교어문학회, 2014.; 김진균, 『근대 척독 교본 서문의 척독 인식』,

대상은 아니었던 죽보·개인문집과 달리, 근대 척독집은 소비자들에게 열렬한 구매 대상이었으며 서포 및 출판사의 주요 수입원이었다.⁵⁾ 1900년대 출판물 광고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대로 당시 가장 상업적인 출판물이었던 교과서류 및 소설과 1,2위를 다투는 순위에 근대 척독집이 들어있다는 점도 당시의 인기를 짐작하게 해준다.⁶⁾ 1906년에서 1910년까지 『척독완편』이라는 책 한 종류의 광고만도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新韓國報』, 『國民報』 등에서 100여 회 이상 발견될 정도이다.⁷⁾

근대 척독집은 ‘한문 글쓰기’의 잔존이 근대 시기 전체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며 강력하게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이한 자료군이다. 이는 크게 문학사적 차원에서 근대를 한문학이 ‘ 쇠퇴’해 가는 시기라고 진단하는 일반적 시각과 충돌을 일으키며,⁸⁾ 글쓰기의 차원에서 근대로 갈수록 한글

『한민족문화연구』46, 한민족문화학회, 2014.

- 5) 대표적인 근대 척독집 저자인 노익형과 박문서관에 대한 다음 증언은 척독집류가 근대 초 서적상 및 출판업계에서 주요한 수입원이었음을 보여준다. ‘노익형은 잘 팔리는 책 만드는 일을 우선했던 것 같다. …… 초기의 박문서관은 개화기 여느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위인전기나 교과서류 및 經書, 尺牘類들로 출판을 시작하였다.’ 『博文書館과 盧益亨 관련 자료 모음』, 『근대서지』 6호, 2012. 803쪽.
- 6) 1910~1917년 『매일신보』에서 광고 빈도가 높은 서적의 통계를 정리한 다음 논문에 따르면 상위 100종 중 척독류가 11종이다. 이 논문은 1910년 전후의 서적의 폭발적인 증가 현상을 방각본의 근대적 전환의 관점에서 분석했는데, 식민지기 내내 중요한 책 중 하나로 척독집을 언급하고 있다. 이경현, 『1910년대 신문관의 문학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31~40쪽.
- 7) 『尺牘完編』의 책 광고는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新韓國報』, 『國民報』 등에 실려 있다. 『皇城新聞』, 1906. 3.15 ; 3.21 ; 8.22~25 ; 8.27~31 ; 9.1 ; 9.3 ; 9.5~8 ; 9.10~15 ; 9.17~22 ; 9.24~25 / 『대한매일신보』, 1908. 12.1 / 『皇城新聞』, 1909. 11. 23~28 ; 11.30~12.5 ; 12.7~10 ; 12.12(저자 ‘朴晶東’ 표기는 오기로 보임) / 『書冊大發賣』, 『皇城新聞』, 1910. 4.5 ; 4.7 ; 4.9 ; 4.12 ; 4.14 ; 4.16 ; 4.19~23 ; 4.26~5.1 ; 5.3 / 『表柳商店廣告』, 『國民報』, 1914. 1.24~8.1 / 『新書籍發售廣告』, 『新韓國報』, 1909. 9.14~28 / 1910. 2.22 ; 6.14
- 8) 한문학이 근대에 ‘ 쇠퇴’했다는 단일한 발전론적 시각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시기

위주의 언문일치로 ‘발전’해갔다는 통념에도 합치되지 않는 불편함을 준다. 그렇다면 왜 근대 척독집은 근대 한문학이 쇠퇴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반론의 적극적인 자료로 연구되지 않았는가. 또는 글쓰기의 근대적 변화 과정에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척독집 자료군이 갖고 있는 ‘문학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⁹⁾ 근대 척독은 생활에 필요할 때마다 베껴쓸 수 있는 예문을 제공하는 실용서라는 성격에, 투식구가 반복되는 비장작물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 또 편저자의 개성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책 내용의 부분적, 전체적 상호모방이 당연하게 목인되는 장르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고는 근대 척독을 한국 한문학의 변화와 모색을 진단하는 데 있어 대중성과 문화론적 차원에서 특유의 연구 가치를 갖고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고,¹⁰⁾ ‘근대 척독집의 성행’이라는 문화적 현상의 의미와 맥락을

한문학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석, 『1920년대 작문교본, 『實地應用作文大方』의 국한문체 글쓰기와 한문 전통』, 『우리어문연구』 39집, 우리어문학회, 2011.1.; 임상석, 『1910년 전후의 작문 교본에 나타난 한문전통의 의미』,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2008.4.; 김진균, 『한학과 한국 한문학의 사이, 근대 한문학』, 『국제어문연구』 51, 국제어문학회, 2011.4.; 김진균, 『근대 한문학의 세 지향』, 『인문과학』 49,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2.; 한영규, 『儒家 아버투스의 상대화와 근대적 문장관의 출현-1920년대 조공섭, 변영만의 논쟁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5, 동양한문학회, 2012.8.; 한영규, 『20세기 전반기, 이연진 문학의 호명 양상』, 『반교어문연구』 31, 반교어문학회, 2012.; 신상필, 『근대 한문학의 성격과 신헌음사』,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9) 다음 책은 ‘섭치’, 즉 고서점에서 헐값으로 거래되는 책들의 문화사적 가치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는 조선후기의 서간 교본인 『척독요람』과 『초간독』이 포함되어 있다. 한문 편지교본이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할 만큼 ‘흔해빠진 것’이었다는 사실은 그 대중적 유통량이 상당한 것이었음을 역으로 짐작하게 해준다. 저자 또한 ‘조선후기 편지쓰기 교본이 다수 등장한 것은 지식의 대중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유승,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글항아리, 2013. 140~141쪽.

- 10) 강평관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문학적 재능을 가진 작가와 그의 작품만을 중요한 문학

탐구해 보고자 한다. 20세기 초 식민지 시기를 포함한 40~50년의 긴 시간 동안 많은 대중들이 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편지’라는 형식의 ‘한문 글쓰기’ 능력을 획득하고자 했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의 시작점인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본고는 근대 척독집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소비재로서의 매력의 근원이 ‘구(舊)’와 ‘시(時)’의 상반된 방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근대 척독집은 한문이라는 구시대의 학문이 갖고 있는 유교적 ‘권위’와 근대적 활용성 차원에서 시무적 ‘실용성’이 끊임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된 ‘소비재로서의 지식’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고는 근대 척독집 13종을 대상으로¹¹⁾ 척독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평범한 대다수의 대중이 생활 속에서 행해온 문자행위의 실제 양상이 중요한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시각은 매우 중요한 입론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준다. ‘문학은 인간을 매개하는 주요한 수단이었으니 그 매개의 구체적인 방식을 탐구해야 한다. 문학이 생활의 어떤 방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창작의 절대 다수였던 비독창적, 비개성적 범작들은 어떤 상투적 수사학으로, 어떤 상투적 미학으로 쓰이고 유통되고 해석되고 감상되었던가 등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강명관, 『발전사관을 넘어 국문학 연구를 생각한다』, 2014년도 고전문학자대회 자료집, 2014.10. 13쪽.

- 11) 본고의 분석대상 13종은 시대별로 각각 1900~10년대 5종, 1920~30년대 7종, 1940~50년대 1종이다. 김우균, 『尺牘完編』, 1905.; 김우균, 『新撰尺牘完編』, 1907.; 김우균, 『增補尺牘完編』, 同文書林, 1913.; 지송옥, 『新編尺牘大方』, 1915.; 현채, 『尺牘大成』, 1917.; 노익형, 『주해부음신식척독』, 박문서관, 1920.; 지송옥, 『부음주석신식금육척독』, 신구서림, 1923.; 한기당, 『最新尺牘大觀』, 1923.; 고병교, 『대중보무쌍금육척독』, 회동서관, 1932.; 김천희, 『석자부음최신금육척독』, 광한서림, 1929.; 이종국, 『무쌍주해보통신식척독』, 덕흥서림, 1930.; 강은형, 『부음주해신식유행척독』, 대성서림, 1929.; 張永九, 『(일상생활의백과사전)家庭尺牘』, 文昌社, 1955.; 이하 예문 인용 시에는 저자와 출판년도만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척독집들은 독립기념관, 규장각 등 일부 대학도서관과 기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문 및 고서점을 통해 구입한 고서들이며, 필자가 직접 텍스트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근대 척독 전체의 규모에 비한다면 본고의 연구대상 목록은 작은 편이지만, 전체 자료군의 성격을 조망할 만한 시대 및 작가 면에서의 분포는

집 내부에서 읽어볼 수 있는 ‘舊學’과 ‘時務’의 양상을 각각 살펴보고, 이러한 ‘舊(권위)/時(실용)’의 동시 획득이라는 이중적 효용이, 척독집이라는 상투적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한문편지 학습서를 50여 년의 한국 근대를 통틀어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게 만든 궁극적인 원인이었다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한문학사에서 근대 척독집이라는 자료군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본고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2. 근대 척독집의 장르적 본질, ‘舊/時’의 긴장과 공존

근대 척독집은 한문 편지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학습 서적으로, 조선후기의 ‘간찰교본’과 ‘척독 선집’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¹²⁾ 한문 서간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통해 읽는 이가 서간의 표현과 문장 규범을 익히게 하는 이러한 서간 학습서의 전통은 조선후기 이후 꾸준히 있어왔던 것이다. 근대 척독집은 이들 한문서간 교본을 계승한 자료이며, 한문서간 특유의 상투적 표현이 좀더 강화된 자료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¹³⁾

비교적 고르게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12) 조선후기 간찰교본과 척독선집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류준경, 『방각본 간찰교본 연구』, 『漢文古典研究』18, 2009. ; 이기현, 『19세기 중후반의 척독집 수용과 편찬』, 『漢文教育研究』28, 2007. 방각본 간찰교본은 정형화된 편지 서식을 일반화, 유형화된 지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책으로, 상업적인 방각본으로 출판되었다는 것 자체가 ‘한문 지식의 대중화, 평균화’를 의미한다. 반면 필사본 척독선집은 문예적 표현에 중점을 둔 문인들의 척독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 문인과 예문 선정에 있어 편자의 취향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는 ‘배타적이고 고급한 한문 향유 문화’를 상징하는 자료라고 하겠다. 이 두 종류의 책, 방각본 간찰교본과 필사본 척독선집은 근대 척독집에 각각 ‘활용’과 ‘감상’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물려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런데 근대 척독집 내부에서 편저자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되는 언급 중에 흥미로운 것은 ‘옛 것(舊)’과 ‘당대의 것(時)’에 대한 예민한 인식이 다. 이러한 언급은 상당히 여러 권의 척독집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① (최성학은) 노년에 서찰 기록에 뜻을 두어 연·조나라 사이에서 노닐며 물러나 여러 이름난 선비들과 문답한 바가 많으니 그것이 이 책이다. 새 것과 옛 것을 서로 참고하고 압록강 동쪽의 습속은 다 털어버렸으며 조목과 종류를 나누어서 각각 그 지향을 다하였다.¹⁴⁾ -조병식, 『尺牘完編序』, 김우균(1905)

② 지금 시속이 일변하여 다양한 서찰 종류에 정해진 규범은 거의 없으니, …… 지송옥 군은 이를 걱정하여 옛 글을 수집하고 새 규칙을 뽑아서 한 편의 책을 만들고 ‘신편척독대방’이라 이름했다.¹⁵⁾ -민중묵, 『序言』, 지송옥(1915)

③ 그런데 우리 조선인은 척독을 작은 기술로 여겨 그 기술을 전혀 못하지는 않으나, …… 이에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해 옛 것과 지금의 척독을 수집하고 엮었다.¹⁶⁾ -현채, 『尺牘大成序』, 현채(1917)

위 예문에서 공히 읽을 수 있는 것은 근대 척독집이 ‘옛 것’과 ‘새 것’을 아우르려고 했다는 의식이다. ①은 1905년 편찬된 『척독완편』에 실려 있는 조병식의 서문이다. 그는 척독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편저자인 최성

13) 조선 후기 간찰교본과 근대 척독집 사이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박은경, 박해남, 김진균, 홍인숙 등의 논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14) 老年以翻翻書記, 屢遊燕趙之間, 退與諸名士, 多所問答, 故是編也. 參互新舊, 悉祛鴨水以東習氣, 條分類別 各極其趣.

15) 現今時風一變, 各樣書類, 殆無定規, …… 池君松旭甫, 惟是之憂, 搜輯舊聞, 採用新式, 作爲一編, 名之曰, 新編尺牘大方.

16) 迺者我鮮人, 視尺牘爲小技, 而全不下工, …… 茲蒐集古今尺牘而編譯之.

학이 후학 및 교류 문인들과 나는 노고를 치하하면서, 『척독완편』이 ‘새 것과 옛 것을 서로 참고(參互新舊)’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새 것과 옛 것(新舊)’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해주는 것이 ②와 ③으로, 이들은 각각 1910년대의 대표적인 척독집인 『신편척독대방』에 실린 민중묵의 서문과 현재의 『척독대성』 자서이다. 여기서는 ①에서 막연히 ‘신구(新舊)’라고 지칭한 것의 실체를 짐작케 하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것은 ②에 따르면 ‘옛 글(舊聞)과 새로운 법식(新式)’이며, ③에 따르면 ‘옛날과 지금의 척독(古今尺牘)’이다. 즉 이들 예문은 근대 척독이 조선후기 간찰 교본이나 척독 선집에서 볼 수 있는 기존의 한문서간 예문을 기본으로 참고하되,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세기 초라고 하는 당대의 시대성을 담은 서간 예문을 탐구하고 모색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근대 척독집이 단지 조선후기의 간찰 교본을 별 의식 없이 답습한 천편일률적인 한문서간의 투식구 모음집이라는 기존의 시각에 약간의 균열을 준다. 이들 예문은 척독집 저자들이 한문 서간의 ‘전통적인 옛 서간문(舊)’을 고수하면서도 ‘그 시대에 맞는 것(時)’을 계속 추구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각각 ‘그 시대에 맞는 것’을 찾게 된 이유, 즉 ‘당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②에서 1915년 지송옥의 척독집에 서문을 써준 조병식은 ‘시속이 일변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각종 서찰의 종류는 다양한데 정해진 규식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시대적 문제상황을 지적한다. 즉 그의 문제의식은 시속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찰 규범은 그대로여서 모방을 하려고 해도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병식에 따르면 지송옥이 척독집을 편찬한 이유는 바로 ‘이를 걱정해서(惟是之憂)’라고 한다.

급격한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그러한 변화에 맞게 척독집도 나름의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척독집은 다양하게 볼 수 있다.

④ 아아, 시국이 유신되고 시무가 매우 바빠져서 사감을 논하는 도리가 날로 넓어지고 일에 수용하는 방법도 날로 많아지니 반드시 읽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척독이다.¹⁷⁾ -김우균, 『緒言』, 김우균(1907)

⑤ 지금 천하 형세를 돌아보니 변화가 날로 빨라져 부득불 그 사이에 더하거나 깎아낼 것이 있다.¹⁸⁾ -김우균, 『自序』, 김우균(1913)

⑥ 그러나 시국이 날로 변하여 요즘 법식이 전에 간행한 것과 달라 미진한 곳이 많아지니 다시 약간 누락된 것을 증보했다.¹⁹⁾ -이용직, 『序』, 김우균(1913)

⑦ 공경하는 예절도 현재 통용되는 방식이 있으니 편지를 쓰는 자가 어찌 시의에 맞게 함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²⁰⁾ -정만조, 『最新尺牘大觀序』, 한기당(1923)

위 예문들은 각각 김우균, 이용직, 정만조 등의 척독집 서문의 일부이다. 이들은 척독이 필요한 이유, 혹은 척독집을 개수해야 하는 이유를 ‘시대 상황의 급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공히 척독집의 증보 및 개수의 원인을 세상이 ‘날마다 급변(日趨於變/時局日新)’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의 척독집에서 ‘더하거나 뺄 것(增刪)’이 있기도 하고, ‘법식이 달라져 미진한 것

17) 噫라 局勢가 維新하고 時務가 劇忙하니 吾人도 論交之道가 日廣하고 酬事之路가 日多하니 不可不必讀할 者이 尺牘이라.

18) 所顧今宇內形勢, 日趨於變, 不得不有增刪於其間者.

19) 然時局日新, 程式時異前刊, 多有所未盡處, 迺更增補其遺漏若干.

20) 其敬之之節, 自有現時通行之式, 爲書牘者, 何可不務適其時宜乎.

이 많(程式時異前刊, 多有所未盡處)아 고쳐야 하기도 하며, ‘공경의 절차도 그 시대의 방식에 맞게(其敬之之節, 自有現時通行之式)’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근대 초 척독집 저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의식 중 하나가 ‘그 시대에 맞는 척독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문서간의 전통을 고수하는 장르로 여겨졌던 근대 척독이 실은 나름대로의 ‘당대적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장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척독집은 한문서간의 문법과 규율을 전하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하는 장르이며, 한문서간으로 표상되는 ‘옛 전통’에 대한 강한 동경과 선망이 작동하고 있는 장르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척독 문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대적 문제의식도 결국에는 격식과 권위를 제대로 갖춘 한문편지를 쓸 줄 아는 ‘옛 전통’을 잘 살려야 한다는 해결방안을 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 척독집의 성행이라는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근대 척독집이 이러한 ‘구전통(舊)’과 ‘당대성(時)’의 두 차원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본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그 ‘구(舊)’와 ‘시(時)’의 공존, 혹은 긴장적 결합이 근대 척독집에 구현되어 있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상반된 경향성의 공존이 근대의 대중들로 하여금 척독집을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주장에 보다 근접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근대 척독집의 ‘옛 전통(舊)’ 지속의 차원

이 장에서는 근대 척독집이 갖고 있는 ‘옛 전통(舊)’ 지속의 측면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척독집이 자기 내부의 목차 체계 및 예문 등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유교적 질서와 그 의미를 주목해 본 뒤, 둘째, 척독집이 구학문을 옹호하는 담론 매체로 기능하고 있었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교적 위계질서와 예(禮)의 반영

이 절에서는 척독집의 내부 체제 및 예문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교적 질서와 그 의미를 통해, 근대 척독집이 ‘옛 전통(舊)’을 지속하고 있는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목차 체계에서 드러나는 유교적 원리이다. 1900~1910년대 척독집들이 목차상 거의 반드시 편성하고 있는 ‘각당칭호(各黨稱號)’, ‘가정서식(家庭書式)’, ‘활투(活套)’ 부분은 척독집의 독자로 하여금 그러한 유교적 상하 위계와 준비의 질서에 기본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침이었다. 근대 초 가장 대표적인 척독집인 김우균의 『증보척독완편』(1913)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各黨稱號

第一節 父黨 一.父子 二.祖孫 三.叔姪 四.兄弟 五.從叔姪 六.從兄弟 七.族祖孫叔姪兄弟宗親 八.姑叔姪 九.妹夫

第二節 母黨 一.母 二.祖母 三.伯仲季母 四.姑母 五.嫂 六.姊妹

第三節 外黨 一.外祖父母 二.外叔父母 三.外從兄弟 四.姨叔父母 五.姨從兄弟姊妹

第四節 妻黨 一.妻 二.妻父母

第五節 鄉黨 一.師 二.父執 三.平交

家書式

一.上祖父書 二.父在家寄子書 三.子在家上父書 四.母在家寄子書 五.

上外祖書 六.母寄出嫁女書 七.祖母寄孫女書 八.弟在家上兄書 九.兄在家寄弟書 十.叔姪 十一.舅甥 十二.翁壻 十三.上姑叔書 十四.上姨叔書 十五.夫在外寄妻書 十六.內外從 十七.男妹 十八.宗族 十九.姻戚 二十.上姨兄書 二十一.與姨弟書²¹⁾

‘각당칭호’는 친족의 범위를 분류하고 그 구체적인 명칭을 다양하게 소개, 나열하는 대목이다.²²⁾ ‘부계(父黨), 모계(母黨), 외가(外黨), 처가(妻黨), 지역사회(鄉黨)’의 확장 순서 자체가 이미 유교 사회에서 마땅히 친밀하게 맺어야 할 관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각각의 하위 범주에서 다시 세분화되는 관계 또한 유교적 관계 맺기의 기본 원리인 ‘친친(親親)’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가정서식’은 가족 관계에서 주고받는 편지들을 한 통의 완성된 예문으로 소개하는 부분으로, 이 예문의 순서 역시 조손, 부자, 모자, 모녀, 조모손녀의 사례와 같이 ‘남성·연장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위계 질서에 따른 관계의 순서로 왕복 서한이 배치되어 있다.²³⁾

또한 근대 척독집에 빠짐없이 들어있는 ‘혼서식(婚書式), 축문서식(祝文書式), 조장식(弔狀式), 위장식(慰狀式)’의 서간 양식 역시 혼례와 상제례를 중시했던 유교적인 옛 전통의 지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21) 김우균, 『增補尺牘完編』, 同文書林, 1913.

22) 예컨대 1절 ‘父黨’의 ‘父子’ 관계 부분은 이렇다. ‘父主(父稱) 子 次子(子自稱) 家親 老親 家嚴 嚴親 家君(己父稱) 椿丈 椿府丈 椿當 尊大人(人父稱 以上生存稱) 先君 先人 先親 先考 先丈 先府君 先大人(人父稱 以上歿稱)’

23) 이러한 목차 분류 및 설정은 1910년대까지의 척독집인 지송옥의 『척독대방』(1915)과 현재의 『척독대성』(1917)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20~30년대의 편지예문집 성격의 척독집은 전체적인 예문 제시의 순서가 친친의 원리로 되어 있으며 대략 ‘조부·부→조모·모→부부·형제→백숙부(모), 종형제, 외조부모→장인장모, 처남매부, 사돈, 동서→존장, 스승’의 순서로 서간문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혼례와 상례에 관련된 서간문 양식은 1940~50년대까지도 순한문으로 된 예문이 실려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근대 척독집의 문체 양식이 1900~10년대의 한주국종 국한문체에서, 1920~30년대의 국주한종의 국한문체를 거쳐, 1940~50년대에는 거의 한글 위주로 급변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유교적 예식 절차의 서식(書式)만큼은 유독 순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²⁴⁾ 이는 근대 척독집이 전통적인 유교적 예법을 중시했으며, 그것을 지속하는 것을 매우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음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근대 척독집 자체의 내부 예문에서 한문서간을 쓸 때 유교적 상하질서, 즉 준비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메타적인 관점의 글이 발견되기도 한다. 1930년에 출간된 이종국(李鍾國)의 『무쌍주해보통신식 척독(無雙註解普通新式尺牘)』은 자신의 척독집 예문을 통해 한문서간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척독론’의 수준으로 피력하고 있는데,²⁵⁾ 그는 당대의 한문서간을 쓰는 이들이 가장 중시해야 할 기준이 ‘존비(尊卑)’라고 못박는다.

24) 일례로 1910년대의 대표적 척독집인 김우균의 척독집에 실려 있는 축문 서식은 1955년 발행된 척독집인 『가정척독』에도 순한문의 원문 상태 그대로 실려 있다. ‘題主祝-維歲次云云孤子某, 敢昭告于顯考某官府君, 形歸窶窶, 神返室堂, 神主既成, 伏惟尊靈, 舍舊從新, 是憑是倚’, 김우균, 『增補尺牘完編』, 1913, 264쪽.; 張永九, 『일상생활의백과사전家庭尺牘』, 文昌社, 1955, 132쪽.; 1955년 발행된 척독집인 『家庭尺牘』에서 축문서식, 상제례문, 혼서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간문은 완전한 언문 일치의 순한글 표기 서간이다.

25) 이종국의 척독집은 천편일률적인 상호모방과 짜깁기를 벗어나 저자의 개성이 강하게 부각된 특이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근대척독의 문체와 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하여 당대 문화와 인정세태를 흥미롭게 보여주는 개성적인 서간들이 들어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동시대인 1920년대 척독집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주목을 요한다. 홍인숙, 『1930년대 개별 척독집 연구- 이종국의 무쌍주해보통신식척독(1930)의 특징 및 의의』, 『한국고전연구』2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12.

⑫ 우선 기두방식과 다음 기거류 순서에 이르기까지 준비와 선후를 스스로 마땅히 분별하여 써야 한다. 만약 그 순서를 잃어버리면 무지함에 빠져 남의 조소를 면하기 어려우니라. 어제 소위 새로 간행했다는 척독을 본즉 생질이 외숙에게 올린 편지에 먼저 외숙의 안후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외조 부모의 안후를 물었으니 이는 그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누구를 향하여 서찰을 보내든 그 사람의 조부, 부친이 계시면 먼저 조부, 부친의 안후를 묻고 다음에 그 부모를 물으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형제에 이르며 그 다음 자질과 식구들에 이르러야만 순서를 잃지 않는 것이다.²⁶⁾ -이종국, 『外祖父에上하난書 答書』(13번, 1930)

⑬ 비록 친족과 내외척의 숙질간이라도 그 조카가 나이가 노성하면 삼촌 된 자가 항렬로써 스스로 높일 수 없다. 무릇 문자상 말을 엮을 때도 크게 하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경하여 말해야 하며, 또 공경이 지나쳐서도 안 되고 반드시 경중을 따져야 하니 마땅히 익힐 것을 힘써 바라노라.²⁷⁾ -이종국, 『外叔에上하난書 答書』(14번, 1930)

‘준비(尊卑)’란 높여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각각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한문서간에서는 관계와 상황에 따른 정확한 호칭을 적절하게 선택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위 ⑫번 예문은 서간문을 시작하는 방식인 ‘기두방식(起頭方式)’과 안부 묻는 말인 ‘기거류(起居類)’에 있어서 ‘준비와 선후’를 잘 분별하여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²⁸⁾ 서

26) 始面起頭方式과 次及起居類順序에 尊卑先後를 自當分別用之也니 此若失其次序하면 陷於無知하여 難免人之嘲笑이니라 昨見所謂新刊行尺牘한즉 甥姪이 表叔에 上하난 書에 先問表叔之安候하고 次問外祖父母安候하였스니 是其先後倒錯이라 誰某를 向하야 與書하던지 其人的 祖與父가 有하면 先問其祖父安候하고 次及其父母하며 次及其人兄弟하며 次及其子姪家內라야 次第를 不失함시오

27) 雖親族及內外戚의 叔姪間이라도 其姪이 年紀가 老成하면 爲叔者가 不可以行列로 自高하야 凡於文字上措語에 不可太忽시오 必敬而言之가 可矣오 又不可過敬하고 必使輕重으로 得當習之를 務望이라

28) 1910년대까지의 척독집에는 서간문의 흐름에 따라 기두에서 결미까지의 투식어를

간문에 있어서 계절과 절기에 맞는 안부 인사, 사모와 그리움의 표현 등을 격조 있게 잘 선택하고 준비와 선후의 예우를 갖추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이 예문은 이러한 예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안부 묻는 순서가 뒤바뀐 사례를 소개한다. 어느 척독집의 서간문에서 외삼촌의 안부를 먼저 묻고 나서 외조부모의 안부를 묻는 예문을 실었다는 것이다. ⑫는 이 서간문에 대해 ‘선후가 뒤바뀐(先後倒錯)’ 것이므로 ‘남의 조소를 면키 어렵다(難免人之嘲笑)’는 혹독한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⑬의 예문에서는 ‘나이 많은 조카와 나이 어린 삼촌’의 예를 들면서 친족간 항렬의 고하에 따라 무조건 준비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를 보여 주기도 한다. 자기 항렬이 높다고 해도 연장자인 조카에게 지나친 하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준비법으로 상징되는 유교적 상하 질서와 예법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의 실질에 맞게 적용되는 섬세한 질서임을 보여준다. 이 예문은 따라서 한문 서간에서 그러한 위계질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해서 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니 힘써 익혀야 한다는 당부로 마무리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측면, 즉 근대 척독집의 목차 순서와 ‘각당칭호’·‘활투’의 편성, 상제례·혼례 서식의 순한문체 유지, 그리고 척독집 자체의 예문을 통해 설파되고 있는 준비법의 강조 등은 모두 근대 척독집

모아놓은 분류를 자주 볼 수 있다. 서간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이 투숙어 모음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단어나 표현을 적절하게 골라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지송옥의 척독집에는 ‘問別類, 慕仰類, 因時敍別類, 缺候類, 惆愴類, 四時景色類, 頌揚類, 起居類, 欣喜類, 自敍類, 恃愛類, 干請類, 臨書類, 回示類, 保重類, 冀亮類’로, 현재의 척독집에는 ‘起頭類, 未審類, 時令類, 氣候類, 萬安類, 伏慕類, 仰念類, 小生類, 粗安類, 就告類, 饋遺類, 結語類, 不備類, 伏惟類’의 분류로 되어 있다. 지송옥, 『尺牘大方』, 신구서림, 1915.; 현재, 『尺牘大成』, 대창서원, 1917.

이 ‘옛 전통(舊)’을 지속하는 면모를 강하게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 척독집은 기본적으로 한문서간이라는 형식을 통해 구현되는 유교적 질서와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장르였던 것이다.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친족 상하관계 및 상황에 따른 적절한 표현을 정확하게, 또한 격식 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척독집의 중대한 목표였다. 이는 근대 척독집이 한문 투식구로 점철된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책이라는 비난을 받게 하는 지점이었으나, 역으로 척독집이야말로 ‘예(禮)’라는 형식적 차원의 전통적 유교질서를 가장 강력하게 보존했던 장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2) 구학문 옹호론의 매개체

이 절에서는 근대 척독집이 구학문, 즉 한학(漢學)의 가치를 옹호하는 매체로 기능함으로써 ‘옛 질서(舊)’를 지속하고자 했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척독집에서는 한문 문장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종종 발견된다. 한문서간을 공부하기 위한 학습서라는 척독집 고유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근대 척독집의 주요 내용에서 최대 소재는 경성이나 외국에서의 유학 상황을 전제로 한 ‘학업 훈계’였다.²⁹⁾ 흥미로운 것은 소재 면에서는 신식 학교제도에서의 수학 상황을 소재로 한 서간문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문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한문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 혹은 유교적 경전 공부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발언하는 내용이 여러 권의 근대 척독집

29) 특히 근대 척독의 대유행기였던 1920~30년대의 예문집류 척독집에서는 첫 머리 20여 개의 왕복서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가 근대적 학교제도에서 수학중인 자손들을 격려하고 경계하는 내용일 정도이다.

에서 골고루 한두 편 이상 발견된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⑭ 근래 각 학교의 학생들이 신학문에는 과연 성취한 효과가 있어 그 응변 고답이 족히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러나 한문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아서 집안 내의 서찰에서 친구 간의 편지까지 어구가 말이 되지 않고 어로(魚魯)를 분별하지도 못하며 또 글씨의 자획은 거칠고 졸렬하며 틀리기까지 하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설령 조정과 사회에 나아간다 해도 한문에 전혀 무식하니 다만 입으로만 하는 피상적인 학문으로 능히 일을 처리하겠느냐. 예전에는 한문에 얽매어 세상사를 밝게 알지 못했으나 지금은 이것을 버리는 데 이르러 편지를 쓸 때 마음 속의 일을 다 꺼내 말하지 못하고 병어리가 꿀 먹은 모양과 같으니 그 어리석음이 진실로 다 미칠 수가 없다. 너는 이런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고 교과를 배우는 여가에 모름지기 한학에 힘을 다하여라. 한학을 이루면 다른 학문은 또한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³⁰⁾ - 현채, 『祖가答孫흥 漢文을論함』, 현채(1917)

위 예문은 1917년 현채의 척독집에 실린 서간문 중 조부가 손자에게 보낸 답서로, ‘한문을 논함’이라는 작은 부제가 달려 있다. 조손 관계의 서간문 형식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한문 글쓰기 상황에 대해 논하겠다는 뜻을 표제에 드러내고 있는 예문인 것이다. 한문을 논하겠다는 제목대로 이 예문은 당시 사람들의 한문 수준을 ‘편지글은 말이 되지 않고 자획은 줄

30) 近來各學校學生이 新學問에는 果然成效가 有호고 또 其雄辯古談이 足히 世人을 壓伏호나 然이나 至於漢文에는 全不留心호야 家內及朋友間短札에 語句가 全不成說호고 魚魯를 莫辨호며 또 字畫이 畫荒拙絶 호야 萬目기 不堪호니 設令此人이 出호야 朝廷及社會에 立호면 其漢文이 全無호고 惟但히 口舌及皮相의 學으로 能히 濟事호깃느냐 昔日에는 漢文에 拘泥호야 世事를 不曉호더니 今에는 并히 此식지 棄호야 作書時에 心中事를 能히 宣吐치 못호니 便如啞者食密 其愚는 眞不可及이라 汝는 慎히 效尤치말고 校科餘暇에 須히 漢學에 致力호여라 漢學이 成호면 他學이 또호 易與호리라 姑此不一호고 來效를 竚觀호다

렬하며, 글씨를 구별도 못할 뿐 아니라 틀리기까지 한다'고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또한 한문에 지나치게 얽매었던 과거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마음 속의 일(心中事)'조차 서간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들을 '꿀 먹은 벙어리(啞者食蜜)'라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사람들이 신학문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한문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全不留心)'고 '버리기(此식지棄)'까지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당대의 풍조를 크게 걱정하며 한문에 무식한 이들은 '조정과 사회에 나가서도 일처리를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신학문은 단지 '입으로만 떠드는 피상적인 학문(口舌及皮相의 學)'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문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은 제 구실을 푹푹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이 예문은 '한문이 모든 것의 기초이자 근본'이라는 관점을 강하게 설파한다.

이렇듯 근대 시기 신구 학문의 경쟁과 상호 비판의 구도를 날카롭게 부각시키면서 한문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은 1930년 이종국의 척독집에서도 발견된다. 아래 예문은 사제간의 서간으로, 제자가 <대학>을 읽다가 해독되지 않는 난해구를 별지에 첨부하여 스승에게 묻는 설정을 취하고 있다. 이 때 제자는 경전 주해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면서 더불어 구학문을 '부패한 학문'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에 대한 스승의 의견을 묻는다.³¹⁾

⑮-1 보내온 별지 초록을 구절마다 살펴보니 최근 공부의 독실함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눈으로 본 듯하다. 대저 공부의 방법은 책을 펴고 무조건 읽

31) 就伏白近讀大學에 其疑難處를 未得自解하와 逐句抄錄하야 別紙伏上하오니 下鑑後節節詳註下教하시와 俾解迷惑을 伏望이오며 且有伏達事하오니 非他라 有人이 從京城來하야 勸渠入新學校曰 舊日學文은 是腐敗之學이라 實無所用於今日 因 즉 新學文을 研究하라 云하오니 新學校에 就學함이 恐未知如何인잇고

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되 그 순서가 있는 법이다. 우선 책을 펴고 책상에 앉아 수백 편을 낭독을 하게 되면 자연히 입과 눈에 익숙해져 책을 덮고 앉아있어도 장구와 주해가 또렷이 본 것과 같게 된다. 그런 후에 또 반복하여 깊이 생각하여 의심나는 게 없는 곳에서 의심이 일어나면 공부가 점차 정밀하고 실질적인 데로 들어가게 된다. 만약 노상 의문만 일으키고 그 의문을 풀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고 좁은 데로 빠질 것이니 반드시 익히고 연구하여 석연하게 의심이 없어야만 바야흐로 진정한 공부라 할 것이다.

⑮-2 또 신학교 입학은 좋은 일이다. 지금 각국이 상호 교통하는 세상에 옛 학문만 고수하고 신식 학문에 완전히 어두우면 어찌 남과 더불어 교제를 하겠는가. 그러나 구학이 부패했다는 말은 지금 세상의 연소배의 망발이다. 그 경박함과 어그러짐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 몸가짐에 있어서는 필히 구학의 근신함으로 근본을 삼고, 세상에 나가서는 신학문으로 서로 참고하여 쓴다면, 교주고슬과 같은 고지식함의 오류가 없을 것이요 또한 경박하고 망패한 폐단도 없을 것이니 힘쓸지어다.³²⁾ - 이종국, 『弟子가先生前에上하난書答書』(28번, 1930)

위 예문의 ⑮-1은 제자가 보내온 별지를 살펴본 스승이 질문의 수준으로 미루어볼 때 제자의 공부가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며 치하하는 말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올바른 경전 공부 방법을 훈유하는 내용으로,

32) 送來別紙抄錄은 句句考見則近日所工之篤實을 不目是睹라 大抵用工之法이 不可開卷泛讀이요 惟尋思講究하되 其次第가 有하니 始則開卷對案하야 朗讀幾百遍則 自然習於口目하야 掩卷默坐라도 章句註解가 瞭然如見이오 然後에 又反復尋역하야 無疑處에 起疑라야 工夫가 漸入精實이오 若一向起疑만 하고 不能釋疑則 反入於淺窄이니 必須講之究之하야 釋然無疑라야 方是真箇工夫라 且新學校入學도 亦是好事라 方今各國이 互相交通之世야 若固守舊學하고 全昧新學이면 何以能與人交際乎아 然이나 舊學腐敗之說은 乃是今年少輩妄說也니 切勿效其輕悖하고 持身則必以舊學之謹慎으로 爲本하고 行世則以新學으로 參互用之하면 自無膠柱鼓瑟之譏이오 亦無輕薄妄悖之弊矣리니 其勉之哉어다

자칫 형식적으로 흘러갈 법한 소재를 통해 매우 깊이 있는 의론을 보여준다. 우선 이 예문은 고리타분해 보이는 반복적인 경전 낭독과 암송이 결국 그 본래의 ‘의미를 탐구(講之究之)’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책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그렇게 스스로 제대로 안다고 믿는 지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질문이 생기는 법이며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의문을 키워가야 ‘점차 정밀하고 실질적인(漸入精實)’ 공부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전통적인 공부법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내용의 이 서간문은³³⁾ 그 자체로 구학문의 가치를 강하게 전달한다. 여기에 이어지는 ⑮-2 부분은 구학문의 가치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언급되는 대목이다. 저자는 스승의 입을 빌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부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구학문이 부패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연소배의 망발(年少輩妄說)’이며 ‘경박하고 망패한 폐단(輕薄妄悖之弊)’이라며 날카로운 비판의 입장을 드러낸다.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구학문을 수신의 근본으로 삼되 세상에서는 신학문을 참고하라는 것으로, 이는 신구 학문을 적절히 절충하라는 것처럼 보이는 결론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전통적인 공부법의 의론적 깊이의 맥락에서 이 내용을 볼 때, 또한 신학문을 ‘세속적 처신(行世)’ 영역으로 배치한 데 비해 구학문을 ‘몸가짐(持身)’이라는 본질적 영역으로 배치하는 논리의 구도로 볼 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구학문의 가치’라는 근본으로써의 성격이라고 하는 점은 명백하게 전달된다.

33) 이러한 내용은 한문서간의 전통 중에서도 퇴계의 서간에서와 같이 사제간에 학문적 의론을 주고받는 서간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이다. 이종국의 척독집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의론적 성격에 대해서는 홍인숙(2013), 앞 논문 참조.

⑮ 지금 세상에 살면서 지금의 학문을 거칠게나마 알지 않을 수 없으나 학교 졸업 후에는 다시 고서를 읽어서 옛 것을 참고하고 지금을 가늠함이 가르침의 방도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 아무개 아이에게 이번 겨울에는 한문을 읽힐 것을 권하니 아무개 조카를 곧장 깨우쳐 보내 벗하여 강독케 함이 어떻겠는가.³⁴⁾ -지송옥, 『外從兄이內從弟의계與하난書』(20번, 1923)

⑯ 우리가 학교 졸업생으로써 현시의 신학문은 거의 공부했다 할 수 있으나 이는 성성이가 말하는 수준을 면치 못합니다. 격치의 학문과 궁지의 공부는 옛 책 속에서 말미암아 나오지 않음이 없으니 남아라면 마땅히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바로 오늘날을 준비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희 집에 경사자 집과 백가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바라건대 형께서는 곧 왕립하셔서 겨울 석 달 동안 문장과 역사를 죽히 공부함이 어떻겠습니까.³⁵⁾ -김천희, 『妻男寄妹夫』(49번, 1929)

이 당시 척독집에서는 한문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이나 한문서간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뿐 아니라, 유교 경전 및 사책, 백가서로 상징되는 ‘구학문’의 공부와 독서를 권유하는 내용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위 두 예문은 모두 신구의 학문을 접하는 순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신식 학문을 익히되 나중에는 반드시 구학문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지를 보여주고 있다.

⑮는 ‘학교’라는 신식 제도에서 신학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지금 세상에 살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간단히 설명한다. 그러나 학교를

34) 居今之世하야 今之學問을 不可不粗解나 學校卒業後난 更讀古書하야 叅古酌今이 似爲敎方故로 使某兒로 今冬은 勸讀漢文하니 某侄을 卽爲喻送하야 使之件讀이 如何오

35) 吾儕가 俱以學校卒業生으로 現時新學文은 庶謂貫穿이나 此未免猩猩能言이라 格致之學과 窮知之功이 莫不由舊書中出來니 男兒須讀五車書난 正爲今日準備語也라 敝廬에 經史子集과 百家諸流가 無不畢備하니 望吾兄은 卽賜光臨하야 以 做三冬文史足用之工이 如何오

졸업한 후에는 다시 고서를 읽고 옛 것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조카에게 함께 한문 경전을 읽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⑩은 신학문을 한 학생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상태를 ‘성성이가 겨우 말할 줄 아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신학문을 배운 자신을 성성이에 비유한 것은 신학문이 자기 몸에 익숙하게 배지는 않는 것이며 따라서 진짜 학문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이러한 신학문에 대비되어 서술되는 것은 ‘격치와 궁지의 학문(格致之學 窮知之功)’이 담겨있는 ‘옛 책(舊書)’이다. 학교에서 배운 신학문은 흉내나 내는 것이지만 다섯 수레의 옛 책을 읽는 것은 ‘바로 오늘날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논지는 확실히 구학문에 진정한 학문으로써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살펴본 것처럼 근대 척독집은 구학문의 가치 옹호를 적극 수행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옛 전통(舊)’을 지속하는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근대 척독집에서 구학문을 옹호하는 논리는 그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근본’이며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이었다. 근대 척독집에서 보이는 이러한 구학문의 가치에 대한 옹호는 당시 대중들에게 일견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구학문을 ‘세상이 달라져도 변치 않는 전통적 권위’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4. 근대 척독집의 ‘시대성(時)’ 반영의 차원

이 장에서는 근대 척독집이 갖고 있는 ‘당대적인 시대성(時)’ 반영의 측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근대 척독집이라는 장르가 문체 의식의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시대적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측면을 주목해 볼 것이다. 둘째, 근대 척독집이 당시 신문물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었으며 나아가 문화적 학습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문체 의식

근대 척독집에 실려 있는 한문 서간의 문체는 시대별로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편이다. 1900년대~10년대의 척독집이 거의 ‘순한문’에 가깝다면 20~30년대 대부분의 척독집은 국문 통사구조를 문장의 기본 구조로 하면서 한자로 된 단어들을 배치한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의 문체였으며, 이후 40~50년대의 척독집은 ‘순국문’에 가까운 문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별 척독집의 국한문 비율과 문체적 실현 양상의 대표적인 예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⑰ 思汝之際이 卽見手滋호야 以悉履況이 旅安호니 慰豁十分이로다 ㅁ
 衰頹日甚호니 理所固然而汝父母가 俱安호고 渾眷이 枚平호니 幸也라
 冊子는 依到而鏡品이 亦極佳호야 正合吾眼이라 凡吾衰境媿書는 不過消
 遣法而若曰痼癖則不知我也라 -김우균, 『上祖父書 答書』(1913)

⑱ ㅁ家오가가 本來高門巨族본래고문거족으로 近代근대에 至지하야 久
 구히 零替령체한지라 汝祖以來여조이래로 艱難中간난중에 在재하야 門祚
 문조가 甚薄심박하고 家聲가성이 幾絶기절터니 幸幸히 嗣續사속이 有유
 함으로 ㅁ家오가의 舊業구업은 汝여의 身分신분을 至待지대하는 바이니
 汝여는 尤當此우당차를 體테하야 奮勵분려히 志지를 立립하고 學學을 修
 수하야 祖先조선의 業업을 繼계할지어다 -강은형, 『父부가 留學류학하는
 子자에 寄기하난 書서』(7번, 1929)

⑲ ㅁ기운이 나날이 깊어옵니다. 그동안 조부(祖父)님 조모(祖母)님 강영
 (康寧)하시오며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평안하시고 어린 동생들도 무사히 지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객지(客地)에서 잘 지내오며 학교(學校)에 매일(每日) 다니오나 이번 삼학년(三學年)이 되어서는 수학(數學)이 전보다 어려워서 대단히 걱정입니다. -장영구, 『조부祖父님께』(1번, 1955)

1910년대의 척독집인 ⑰의 예문은 전형적인 한주국종(漢主國從)의 국한문체이다. 국문 독음을 표기하지 않고 현토만 달아놓은 상태라 국문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한눈에 보기에 순한문에 가까운 표기임을 알 수 있다. 문장구조 면에서도 술어를 먼저 제시하는 한문 특유의 어순을 따르고 있으며, 평균 4자씩의 한자어를 사용하여 한문식 표현을 살리면서 ‘若曰~則~也(만약 ~라면 ~이다)’와 같이 15자 이상의 한문 문장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⑰의 문체는 반드시 독해와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순한문에 가까운 국한문체라고 하겠다.

이에 비해 1920년대의 척독집 예문인 ⑱은 우선 모든 한자에 한글로 된 독음이 표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한자어가 두 글자 정도의 단어 수준으로 파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의 기본 뼈대 역시 국문의 문장 구조로 완전히 해체되어 있어, 읽는 즉시 독해가 가능한 국주한종(國主漢從)의 국한문체이다. 표기의 비율, 문장의 구조, 내용 전달 등의 면에서 국문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장된 문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20~30년대의 국주한종의 국한문은 ⑲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순국문에 일부 단어만 한자로 괄호 안에 표기하는 40~50년대의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

근대 척독집이 시대 흐름에 따른 예민한 문체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척독집 내의 저자 발언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1910년대와 1930년대를 대표하는 척독집 저자인 김우균과 이종국은 우리말과 한문이 맞지 않

는 ‘언문불일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한문·국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은 발언을 남기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㉑ 말은 글의 주요한 뇌이며 글은 말의 남아있는 울림이다. 한자만 쓰면 예전에 비해 난삽하고, 국문만 쓰면 예전에 비해 조야하니 뜻있는 자들의 고민거리이다. 이에 <척독완편> 원고에서 번잡하고 쓸데없는 것을 깎아내고 간편하고 쉬운 것을 모아서 국문은 조금 돕게 하고 한자는 전처럼 써서 제목을 <신찬척독완편>이라 하여 널리 좋게 하고자 하였다.³⁶⁾ -김우균, 『緒言』(1907)

㉒ 또 우리 풍속은 말과 글이 둘이라 일치하지 않는 병통이 있으므로 구두(句讀)로 풀었으니, 부녀와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먼 시골도 똑같이 도달할 것을 기대했다.³⁷⁾ -김우균, 『자서』(1913)

㉓ 일의 사유를 쓸 때 애초에 글이 부족하여 그 뜻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엔 국문을 섞어 써서 그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해야 하며 모호한 말을 제거하여 두서를 어지럽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³⁸⁾ -이종국, 『外祖父에上하난書』(13번, 1930)

㉔은 ‘말(言)’과 ‘글(書)’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여 한문서간에서의 각각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1907년 김우균의 『신찬척독완편』의 서문 일부이다. 여기서 저자는 말이 ‘글의 주된 뇌(主腦)’이고 글은

36) 言는 書의 主腦오 書는 言의 餘響이라. 漢字만 專用하면 備前困澁하고 國文만 獨行하면 備前粗亂 혼은 有志者의 遺憾이라. 於是에 尺牘完編 原稿에서 繁閑을 刪拔하고 簡易를 蒐集하야 國文을 助少하고 漢字를 仍舊하야 更名曰 新撰尺牘完編이라 하고 以公同好코자 함이라

37) 既又病其我俗之言之二致之故, 而句讀而釋之, 期欲使婦孺易解, 遐僻均屈. 適因坊友之要廣佈, 猥許刊行者, 亦已數年.

38) 至若事由를 書할 時난 元文이 不足하야 不能盡其意할 境遇면 國文을 雜用하야 使人詳知케함이 可矣오 決不可模糊說去하야 以亂頭緒이니라

‘말의 남은 울림(餘響)’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하고자 하는 ‘말’의 존재가 우선이며 그것을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 ‘글’이라는 생각이 드러나는 대목인데, 이는 ‘말-우리말로 된 중심생각’, ‘글-한자로 된 한문 표현’이 분리되어 있는 언어 생활에 대한 어렴풋한 자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김우균은 언문불일치의 언어 상황에 대해 보다 발전된 자각을 1913년 개정판인 『증보척독완편』의 서문 ㉑에서 ‘우리 습속은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다(我俗之言文二致之故)’라는 명시된 표현으로 남기기도 했다.

그는 한문서간 교본인 『척독완편』의 개정 이유를 ‘국문만 쓰면 조야하고, 한자만 쓰면 난잡’하기 때문에 ‘국문은 조금 돕게 하고 한자는 예전 것 대로’ 썼다고 밝힌다. 이는 ‘한자의 어려움’은 그대로 두되 ‘국문’의 기능은 늘리기로 했다는 표현으로, 실제로 1905년판의 『척독완편』의 단 한 글자의 국문도 없는 ‘순한문체’의 서간문들은 1907년판에서는 구두와 한글 현토가 표기된 ‘국한문체’로 바뀌게 되었다.

㉑과 ㉒은 이와 같이 김우균이라는 대표적인 척독집 저자가 갖고 있는 한문서간에서의 ‘국문’과 ‘한자’에 대한 예민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말(言)-구어-국문(國文)’의 ‘거칠고 조야함(糟亂)’의 문제와 ‘글(書)-문어-한자(漢字)’의 ‘난잡하고 어려움(困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했으며, 그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 방안을 1907년, 1913년, 1920년 이후의 매 개정판마다 국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실현했다.

㉒는 이종국의 척독집에 실린 서간문의 일부로, 한문서간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훈계하는 대목이다. 이 예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문’이 필요할 때를 ‘일의 사유를 쓸 때 글 실력이 부족해 그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경우(事由를書할時元文이不足하여不能盡其意할境遇)’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서간에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용건을 뚜렷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문 실력이 모

자라서 자기 상황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때 바로 ‘국문을 섞어 쓸 것(國文雜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한문체 사용이 일반화된 20~30년대 척독집에서 ‘국문’의 역할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보완’하는 것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시대별 척독집은 상당히 극적인 국한문체의 변화를 실현하고 있었다. 또한 대표적인 척독집 저자들 중 일부는 한문 서간에서의 ‘국문’과 ‘한문’의 역할에 대해, 또한 그 시대에 맞는 국한문의 적절한 비중과 표현에 대해 의식적인 자각을 보여주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은 근대 척독집이 국한문의 혼용 비율과 그 문체적 실현 및 표현 면에서 시대적 변화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반영하고자 했던 장르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문물의 소개 및 문화적 학습서

이 절에서는 근대 척독집이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의 문화적 활용 및 향유의 방식을 안내해주는 학습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척독집은 한문 서간이라는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을 가르치는 교본이었지만, 실제 서간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근대적 일상에서의 신문물을 매우 신속하게 소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10년대의 근대 척독집인 김우균의 『척독완편』에서부터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공원에 놀러감(遊公園)’, ‘활동사진을 봄(觀活動寫眞)’ 등의 일상 문화적 소재를 담은 서간에서부터 ‘회사(會社), 의숙(義塾), 약국(藥局), 전당포(典當舖), 요리점(料理店), 잡화포(雜貨舖), 여관(旅宿店)’ 등의 새로운 문물과 상업 을 소개하는 편지, ‘경제(經濟), 법률(法律), 농사의 이치(農理), 어학(語

學), 산술(算術), 물리학을 권함(勸物理學)’ 등의 근대 학문 소개를 담은 편지까지 제법 다양한 근대적 문물과 제도를 소재로 한 서간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0년대의 척독집에서 신문물을 다룬 서간이 전체에서 약 5% 내외의 비중을 그 내용도 단편적이었던 것에 비해³⁹⁾, 척독집의 대유행기인 20~30년대 척독집에서는 신문물 소재 서간문은 대략 절반 이상의 비중을 소재가 다양해지면서 내용도 좀더 상황에 맞게 설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신문물 소재는 단연 새로운 교육제도였던 ‘학교’로, 20~30년대의 대표 척독집 5종에서 신식 학교를 소재로 한 서간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저자	서간문 번호	총 편수
노익형	1번, 7번, 8번, 11번, 13번, 15번, 16번, 17번, 20번, 21번, 25번	총 11편
지충옥	1번, 3번, 6번, 11번, 12번, 14번, 15번, 17번, 19번, 23번, 33번	총 11편
고병교	1번, 3번, 8번, 11번, 13번, 15번, 16번, 17번, 23번, 25번, 30번	총 11편
김천희	1번, 4번, 5번, 7번, 9번, 10번, 11번, 13번, 17번, 18번, 19번, 27번, 28번, 31번, 36번, 37번, 38번, 43번, 44번, 49번, 51번	총 21편
이종국	1번, 3번, 4번, 5번, 6번, 15번, 17번, 22번	총 8편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30년대의 척독집에서 학교 소재 서간문은 평균 10~20편, 즉 전체의 약 20%로 단일 소재만으로 매우 큰 비중이다.⁴⁰⁾ 학교 소재 서간의 내용은 주로 성실한 학업수행 독려 및 생활

39)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昨拜尙慰라 今日下午八時에 銅峴 高等演藝館 活動寫眞이 比前極爲新奇云호니 倫無寓目之想也아 己與某某友로 有所相約호니 兄如 有意어든 卽枉于敝所가 如何오 掃榻恭候호노이다’, 김우균, 『觀活動寫眞』, 『增補尺牘完編』, 1913. 12~13쪽.

40) 학교 소재 서간이 척독집의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척독집의 목차 배치가 연장자 남성의 편지 우선이기 때문이며 이들 가족 내 남성 어른이 대체로 서간 내용상

습관과 교우관계의 경계, 학업의 어려움 호소, 입학 권유, 학교설립 제안, 교사초빙 권유, 우수한 학업 성취 축하 등이다.⁴¹⁾ 이러한 20~30년대 척독집의 학교 소재 서간문에는 경성이나 외국에서 유학중인 상대의 안부를 묻는 내용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진’, ‘우편 송금’, ‘공원과 극장’, ‘연예 잡지와 문예소설’, ‘여행’ 등의 다양한 신문물이 더불어 맥락 속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㉓ 또 들으니 학교에는 체육운동이 있어서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된다 하니 네가 최근 찍은 사진을 한 장 보내면 너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이 다.⁴²⁾ -노익형, 『兄在外한弟에게하는書』(11번, 1920)

㉔ 약간의 돈을 이체하여 보내니 서대문우편국에서 찾아 쓰도록 하라.⁴³⁾ -김천희, 『孫在外上書 答書』(4번, 1929)

㉕ 내지관광은 심상한 유람이 아니니 실제 지역시찰을 십분 주의하라. 공

학업 훈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41) 노익형 척독집 학교 소재 서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父子, 아들의 경성 유학생활 경계(1번), 孫祖, 학교에서 습자공부 위한 용품 부탁(7번), 祖孫, 학교생활 중 편지쓰기 힘들 것 당부(8번), 兄弟, 유학 간 아우에게 사진과 작문 요청(11번), 姪叔, 고등학교 입학시험 기다리고 있음 알림(13번), 從兄弟, 종제의 공부 근황 물으며 ‘물리화학신술’ 등 어려움 호소(15번), 族兄弟, 족제의 교직 생활 격려(16번), 外祖孫, 외손자의 학교 공부 독려(17번), 外從兄弟, 외종형 학교설립하여 외종제에게 교사 초빙 제안(20번), 媯翁, 자신의 학교 입학시 처남을 같이 입학시키자 권유(21번), 姨從弟兄, 보통학교 설립한 친구의 승인 관련 부탁(25번), 노익형, 『주해부음 신식척독』, 박문서관, 1920.

42) 且聞學校난 體育運動이 有하야 變弱爲強이라 하니 汝의 近間 撮影한 寫眞一幅을 付送則 汝의 容貌를 可히 見而知之할 터이오 ; 사진 소재는 강은형 14번, 33번 서간에서도 볼 수 있다.

43) 累朔에 旅費를 雖務從儉約이오나 近值囊空이오니 多少金을 郵便付送하심을 伏望이오며 …… 若干金을 爲替措交하니 推用于西大門郵便局하라 ; 우편 송부는 노익형 7번, 지송욱 6번, 고병교 10번, 15번, 김천희 9번, 10번, 26번 서간, 강은형 14번 서간 등에서 볼 수 있다.

원명승과 술집, 극장에는 절대 마음을 풀어 헛되이 쓰지 말고 풍토와 백성들의 생활과 습속과 실업을 눈여겨 보고 마음에 새기라.⁴⁴⁾ -김천희, 『父在家寄子』(5번, 1929)

㉔ 근일 소위 문예소설이니 연애잡지니 하는 도깨비같은 소리나 하는 책은 절대 보지 말라. 반드시 실지가 있는 고급위인의 사적과 지방풍습을 널리 보고 연구하라.⁴⁵⁾ -이종국, 『子在外하야上父書』(3번, 1930)

위 예문들은 부자, 조손, 형제간에 왕래한 서간들로 학교 생활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신문물 소재들이 소개되고 있다. ㉓은 형이 외지에서 유학중인 아우에게 ‘체육’ 활동을 하여 신체가 강해졌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사진’을 받아 직접 건강해진 ‘용모’를 확인하고 싶다고 전하고 있으며, ㉔는 ‘서대문우편국’을 통해 송금한 학비를 찾아가라는 조부의 전갈이 담겨 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학생할 중일 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근대적 문물과 제도로 ‘사진’과 ‘우편 송금’을 소개하고 있는 예문인 것이다.

㉕와 ㉖은 아들의 유학생할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공원명승이나 술집, 극장’에 가지 말고 ‘문예소설과 연애잡지’를 보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역시 학생이 금기시해야 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대대 학생들의 유희적인 놀이 문화가 소개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㉕와 ㉖에서 방탕한 놀이문화의 대처점으로 권유되고 있는 것은 답사와 시찰의 성격을 띤 ‘여행’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 ‘고급위인의 사적’을 답사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접할 수 있는 풍토

44) 內地觀光은 非爲尋常遊覽이라 實地視察을 十分注意할지니 公園名勝과 酒肆劇場에 截勿放情浪洩하고 風土民物과 習俗實業을 着眼鏤心하야

45) 近日所謂 文藝小說이니 戀愛雜誌니 ㅎ는 魍魎魍魎之聲과 同一ㅎ 書는 切勿閱見ㅎ고 必實地가 有ㅎ 古今偉人史蹟과 及地方風習을 博觀講究ㅎ라 如此則知識抱負가 自然增進ㅎ리라

와 습속을 관찰하는 ‘실제 지역의 시찰(實地視察)’로써의 여행이 이 시기에 새로운 문물로 떠오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신문물의 신속한 소개 매체로써의 근대 척독집의 성격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텍스트는 강은형(1929)의 척독집이다. 이 책에는 오직 이 척독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 서간문이 다수 발견된다. 여성을 한문서간의 주체로 설정한 20여 편 가량의 서간문이 실려 있으며 여학생 및 여학교를 소재와 배경으로 한 서간이 유일하게 발견되는 이 척독집은 근대 문물의 소개에 있어서도 매우 넓은 소재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㉗ 압록은 요수와 비슷합니다. …… 이 물은 북으로 대륙을 통하고 남으로 반도를 접하여 동토지리상 요충지입니다. 원컨대 형을 맞아 이 물에 유람하여 신식 철교를 보고 통군정에 올라 대륙과 반도의 형세를 깊이 관찰하면 흥중에 자연히 얻음이 있을까 하옵니다.⁴⁶⁾ -강은형, 『邀友遊鴨綠』(53번, 1929)

㉘ 지난 번 딸을 시집보낼 때 요새 사람들의 간략한 예를 따라 혼례식은 예배당에서 거행하고 장로교 목사에게 혼인을 맹세케 하고 내빈은 선화요리점에서 초대하였으니 이것이 세상을 따름이요 선인의 예법을 어지럽힌 것이니 곁곁 웃을 수밖에 없습니.⁴⁷⁾ -강은형, 『友人의 嫁女를 賀함 答』(69번, 1929)

46) 鴨綠은 疑似遼水이라 …… 此水난 北으로 大陸을 通하고 南으로 半島를 接하여 東土地理上 樞要之地라 願컨대 兄을 邀하고 此水에 一遊하여 新式의 鐵橋를 觀하고 統軍亭에 等하여 大陸과 半島의 形勢를 審察하면 胸中에 自然이 有得할가 하오이다 ; 여행 소재를 본격적으로 다룬 서간은 이종국 20번, 21번 서간, 강은형 52, 54번 서간 등을 들 수 있다.

47) 項者에 女를 送할새 時人의 簡約한 禮를 從하여 婚式은 禮拜堂에서 舉行하고 長老敎牧師로 婚을 盟케 하고 來賓은 鮮華料理店으로 招待하였사오니 此 | 비록 俗을 從함이나 先人의 禮法을 亂히 함이오니 呵呵로이다

㉔ 지난 토요일 황토현에 지나다가 이왕직미술관에 들어가니 은화, 동화, 비단이 찬연히 눈을 놀라게 하더이다.⁴⁸⁾ -강은형, 『墨을饋함』(85번, 1929)

㉕ 새해 인사를 부축하나마 표하여 여송연 한 갑과 화양식과자 두 상자를 보내니 뿌리치지 마시고 신년술과 함께 드소서.⁴⁹⁾ -강은형, 『新年에饋함』(71번, 1929)

㉖ 어제 화양잡화점에 들어가니 동서양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있어 알아보지 못할 것도 많았습니다. 문진 쪽에 가 백옥필통 한 개를 사 형의 벼루 옆에 놓으려 합니다.⁵⁰⁾ -강은형, 『文鎮을饋함』(80번, 1929)

위 ㉔은 여행을 제안하는 내용의 서간인데 앞서 본 ㉕, ㉖과는 여행이라는 소재가 다뤄지는 방식이 사뭇 다르다. ㉔은 우선 윗사람의 훈계를 통해 권유되는 막연한 여행이 아니다. 이 예문은 친구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여행이 제안되고 있으며, ‘압록강’이라는 구체적인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압록강’이 남북으로 대륙과 반도에 접해있는 요충지(東土地理上樞要之地)라는 지리적 설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하면, ‘신식 철교와 통군정’으로 지칭되는 근대 문물의 압도감과 역사적 의식을 통해 여행의 포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정확하게 표명되어 있다. 근대 지식의 시각으로 여행지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여행의 계획과 의도를 보여주는 것은 명백히 ‘새로운 문화취향으로써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48) 去土曜日 到黃土峴에 過하다가 李王職美術館에 入하니 銀銅貨帛이 燦然히 目を 驚하는지라

49) 歲儀를 聊表하와 呂宋煙 一匣과 和洋式菓子 貳箱을 貢하오니 勿須勿揮하시고 椒觴을 以佐하소서

50) 昨日에 和洋雜貨店에 入하니 東準西繩의 物이 丘山과 如히 積하야 能히 辨知치 못할 者이 多한지라 文鎮係로 從하야 白玉筆筒壹個를 購하야 吾兄硯右의 具를 佐하오니

또 위 ㉞과 ㉟은 신식 혼례 제도로써의 ‘서양식 결혼’과 새로운 문화향유 방식으로써의 ‘미술관 관람’을 소개하고 있다. ㉞은 딸의 결혼식을 ‘예배당에서 장로교목사의 맹세’로 진행하고 손님들은 ‘선화요리점’이라는 식당에서 대접했다고 하면서 이는 ‘요즘 사람의 간이한 예(時人의 簡約한 禮)’를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㉟은 이왕직미술관에 들러 ‘은동화백(銀銅貨帛)’이 화려하게 진열된 것을 구경했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식 문물이자 문화 행위로서,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전시를 구경하는 ‘관람 행위’가 소개되고 있는 예문이라 할 수 있다. ㊱과 ㊲은 근대적 생산품과 잡화점을 통해 신문물을 소개하는 예문이다. ‘여송연(呂宋煙)’, ‘화양식과자(和洋式菓子)’, ‘화양잡화점(和洋雜貨店)’과 같은 소재는 그 이름만으로도 ‘일본(和)과 서양(洋)’의 신문물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 척독집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신문물 소개서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러한 내용은 그 신문물에 관련된 ‘삶의 문화’, 혹은 ‘소비와 향유의 방식’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까지 점점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학교’라는 신식 교육 제도에 유학한 학생의 존재를 둘러싸고 어떤 안부와 요청과 훈계와 축하의 말이 오고가는지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삶의 문화와 양식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례를 서양식으로 진행할 때의 공간과 주재자와 내빈의 접대방식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는 ㉞의 예문이나, 근대적 여행의 목표와 요령을 알려주는 ㉟예문, 구체적인 상품의 구매와 문화적 소비에 해당되는 내용의 ㊱~㊲의 예문들 또한 ‘신식 삶의 스타일’과 관련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 척독집의 기능은 단순히 신문물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기능을 넘어서, 삶의 방식으로써의 근대 문화의 안내서이자 신문물의 문화적 학습서로써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¹⁾

5. 결론- ‘舊/時’, 근대 척독의 이중적 효용과 그 근대 한문학사적 의미

본고는 근대 시기 전반의 40~50년에 걸쳐 근대 척독집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많이 팔린 출판물 중 하나라는 점에 문제의식의 출발을 두었다. 즉 근대 척독집이라는 ‘상투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한문서간 교본이 오랜 시간 동안 대량으로 출판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된 기현상의 문화적 의미와 맥락을 탐구하고자 했던 것이 본고의 근본적인 시작 지점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는 근대 척독집이 ‘옛 것(舊)/당대성(時)’을 동시에 획득하게 해주는 이중적 효용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근대 시기 전반에 걸쳐 대중들이 척독집을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우선 근대 척독집은 ‘옛 것(舊)’의 지속 차원에서 그 전통과 권위를 수호하는 역할을 자임하였다. 근대 척독집이 쓰여진 한문이라는 서기체계 자체와 그 문자체계가 환기하는 유교적 질서를 자신의 체제와 목차로 구현하고 있었던 점은 전통의 지속 측면을 잘 보여준다. 또한 척독집은 실제로 한문 지식의 권위를 직접 옹호하는 담론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51)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근대 척독집에 다양한 신문물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곧장 그 당시의 현실 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라는 신식 교육제도를 소재로 한 서간문이 다수 발견된다고 해서 ‘그 당시의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 진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척독집 서간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신문물과 문화 소재들은 그대로 시대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당대인들의 욕망의 정도나 지향성’을 근대 척독집이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 했다. 한편 근대 척독집은 ‘당대성(時)’의 차원을 기민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척독집은 국한문의 비율과 문체 면에서 시대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면모를 보였으며, 내용 면에서도 새로운 교육 제도와 다양한 신문물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문화적 학습서의 역할까지도 담당하였다.

이렇듯 근대 척독은 한문이라는 구지식의 권위와 동시대적 변화 민감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이러한 척독집 소비 및 향유의 목적은 ‘옛 것(舊)’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권위’와 ‘당대성(時)’으로 상징되는 ‘시대적 필요’의 동시 획득이었다. ‘구학(舊學)과 시무(時務)’, ‘권위와 실용’, ‘(한문)작문과 (근대)문화’의 이중적 효용가치야말로 대중으로 하여금 비슷한 내용과 편제의 척독집을 끊임없이 소비하게 한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근대 척독집이 갖고 있는 약 40~50년에 걸친 대중적 스테디셀러로서의 핵심적 가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이러한 근대 척독집의 성격은 근대 한문학사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 한문학은 말류화된 투식적 문장으로 점철되는 쇠퇴기의 산물이며 근대 척독집 또한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장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척독집은 시대적 변화와 대중의 요구를 재빠르게 수용하면서 ‘한문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의외의 ‘대중적 활기’를 만들어준 장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척독집은 문체 면에서 한문과 국문의 비율과 조합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고 내용 면에서 전통적 유교 질서와 새로운 제도 문물의 소개를 지속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대중성 획득의 차원에 꾸준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한문 글쓰기의 대중화가 갖고 온 부정적 이면을 한문의 ‘통속적 지식화’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속화의 변화 방향을 타고 ‘한문’이라는 문의 체계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점

은 충분한 문학사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지점이다. 또한 그러한 통속화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는 ‘대중들의 한문에 대한 욕망’ 역시 충분히 주목을 받아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근대 척독집은 문학사적 발전이 단일하고 발전적인 일방향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동시에 ‘착종과 모순으로써의 근대’라는 지점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자료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척독완편』의 이본 연구를 비롯하여 주목받지 못한 각각의 척독집들에 대한 개별 연구, 식민 상황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선(日鮮)’ 척독집 자료 연구 등의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 근대 한문학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연구 지평이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은형(姜殷馨), 『부음주해신식유행척독(附音註解新式流行尺牘)』, 대성서림(大成書林), 1929.
- 고병교(高丙敎), 『대증보무쌍금옥척독(大增補無雙金玉尺牘)』, 회동서관(滙東書館), 1932.
- 김우균(金雨均), 『척독완편(尺牘完編)』, 박문사(博文社), 1905.
- _____, 『신찬척독완편(新撰尺牘完編)』, 동문사(同文社), 1908.
- _____, 『증보척독완편(增補尺牘完編)』, 동문서림(同文書林), 1913.
- 김천희(金天熙), 『석자부음최신금옥척독(釋字附音最新金玉尺牘)』, 광한서림(廣韓書林), 1929.
- 노익형(盧益亨), 『주해부음신식척독(註解附音新式尺牘)』, 박문서관(博文書館), 1920.
- 이종국(李鍾國), 『무쌍주해보통신식척독(無雙註解普通新式尺牘)』, 덕흥서림(德興書林), 1930.
- 장영구(張永九), 『(일상생활의백과사전)家庭尺牘』, 문창사(文昌社), 1955.
- 지송욱(池松旭), 『신편척독대방(新編尺牘大方)』, 신구서림(新舊書林), 1915.
- _____, 『부음주석신식금옥척독(附音註釋新式金玉尺牘)』, 신구서림(新舊書林), 1923.
- 한기당(韓幾堂), 『최신척독대관(最新尺牘大觀)』, 1923.
- 현 채(玄 采), 『척독대성(尺牘大成)』, 대창서원(大昌書院), 1917.
-
- 강명관, 「발전사관을 넘어 국문학 연구를 생각한다」, 2014년도 고전문학자대회 자료집, 2014, 7~20쪽.
- 『근대서지』 편집부 편, 『博文書館과 盧益亨 관련 자료 모음』, 『근대서지』 6호, 2012, 775~806쪽.
- 김진균, 「한학과 한국 한문학의 사이, 근대 한문학」, 『국제어문연구』51, 국제어문학회, 2011, 137~166쪽.
- _____, 「근대 한문학의 세 지향」, 『인문과학』49,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73~91쪽.
- 김진균, 「근대 척독 교본 서문의 척독 인식」, 『한민족문화연구』46, 한민족문화학회,

2014, 133~156쪽.

- 류준경, 「방각본 간찰교본 연구」, 『漢文古典研究』18, 2009, 257~291쪽.
- 박은경, 「文範과 時文으로서의 근대 척독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3, 1~172쪽.
- 박해남, 「근대 척독 자료집 <척독완편>의 출판 현황과 배경」, 『반교어문연구』 32집, 2012, 233~258쪽.
- _____, 「척독 교본을 통해 본 근대적 글쓰기의 성격 재고」, 『반교어문연구』 36, 반교어문학회, 2014, 181~200쪽.
- 신상필, 「근대 한문학의 성격과 신해읍사」, 『한문학보』22, 우리한문학회, 2010, 107~129쪽.
- 이경현, 「1910년대 신문관의 문학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1~273쪽.
- 이기현, 「19세기 중후반의 척독집 수용과 편찬」, 『漢文教育研究』 28, 2007, 407~431쪽.
- 임상석, 「1910년 전후의 작문 교본에 나타난 한문전통의 의미」,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2008, 71~98쪽.
- _____, 「1920년대 작문교본, 『實地應用作文大方』의 국한문체 글쓰기와 한문 전통」, 『우리어문연구』 39집, 우리어문학회, 2011, 463~489쪽.
- 장유승,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글항아리, 2013, 1~361쪽.
- 한영규, 「儒家 아비투스상 대화와 근대적 문장관의 출현-1920년대 조공섭, 변영만의 논쟁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5, 동양한문학회, 2012, 393~416쪽.
- _____, 「20세기 전반기, 이연진 문학의 호명 양상」, 『반교어문연구』 31, 반교어문학회, 2012, 65~99쪽.
- 홍인숙, 「근대 척독집 간행현황과 시대별 변화 양상」, 『한국고전연구』 24집, 2011, 325~358쪽.
- _____, 「1920~30년대 ‘편지에문집류 척독집’의 양상과 그 특징」, 『동양고전연구』 51집, 2013, 119~160쪽.
- _____, 「1930년대 개별 척독집 연구- 이종국의 무쌍주해보통신식척독(1930)의 특징 및 의의」, 『한국고전연구』 2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367~404쪽.

ABSTRACT

Cultural Meaning of Popularity of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and its Status in History of Korean Chinese Literature*

Hong, In-suk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cultural phenomenon of popularity of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between the 1900s and 1950s and explain its status in the History of Korean Chinese Literatur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looked at 13 kinds of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representative of each period in terms of the aspects of 'old tradition(舊)' and 'contemporary meaning(時).' Through this process, it analyzed the dual effects of simultaneous acquisition of 'authority' and 'practicality' was fundamental reasons for the popularity of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In other words, the genre essence of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lied in the co-existence of opposite tendency of 'old/authority' and 'contemporary/practicality'. This article ultimately claims that the reason why modern people continue to consume the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is because of these dual effects.

To prove this, this article examined the dimension of maintaining 'old tradition(舊)' in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in terms of two things. First, it focused on the order and principles of Confucianism embodied through the table of contents and example sentences in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Second, it focused on the function of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as a medium defending the old classic studies an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32-2011-0786-1-2)"

details of the function. Also, it examined the dimension of reflecting 'contemporary meaning(時)' i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in terms of following two aspects. First, it analyzed the chronological change of Korean and Chinese mixed style as well as the stylistics on the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by the authors of major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Second, it examined the contents of various products of civilization introduced in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and pointed out that it also served as a cultural learning material.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at the level of History of Korean Chinese Literature should be seen not as a text in the period of decline, but as a genre that 'promptly responded to the historical change and demands of the public.' The agonies and search for solutions by various readers of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were contained in this text, through which the écriture that is 'Chinese Classics' became popularized and lasted. Thus, the status of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in the History of Korean Chinese Literature should be evaluated more actively.

Key Words

Modern Writing Letters in Chinese, co-existence of tradition and historical meaning, dual effects, textbook of old vernacular letters in late Joseon Dynasty,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in late Joseon Dynasty, Kim U-kyun(金雨均), Hyun Chae(玄采), Ji Song-uk(池松旭), Lee Jong-guk(李鍾國), Korean and Chinese mixed style

논문투고일 : 2014. 10. 31
심사완료일 : 2014. 12. 1
게재확정일 : 2014. 12. 3

